

가 난 한 내 가

아 름 다 운 나 타 샤 를 사 랑 해 서

오 늘 밤 은 꼭 꼭 눈 이 나 린 다

나 타 샤 를 사 랑 은 하 고

눈 은 꼭 꼭 날 리 고

나 는 혼 자 쓸 쓸 히 있 어 소 주 를 마 신
다

소 주 를 마 시 며 생 각 한 다

나 타 샤 와 나 는

눈 이 꼭 꼭 쓸 이 는 밤 흰 당 나 귀 타
고

산 골 로 가 자 줄 줄 이 우 는 밭 은 산 골

로 가 마 가 리 에 살 자

눈 은 꼭 꼭 나 리 고

나 는 나 타 샤 들 생 각 하 고

나 타 샤 가 아 님 을 리 없 다

언 제 별 써 내 족 에 고 조 곤 히 와 이

아 기 한 다

산 물 로 가 는 것 은 세 상 한 테 지 는 것

이 아 니 다

세 상 같 은 건 더 러 워 버 리 는 것 이 다

'더러워' 세상과 대비되는 흰색 이미지

(눈) 은 꼭 꼭 나 리 고

아 름 다 운 나 타 샤 는 나 를 사 랑 하 고

어 데 서 흰 당 나 귀 는 오 늘 밤 이 졸 아 서

응 앙 응 앙 을 을 것 이 다

환상적, 동화적 이미지, 이따도 '백마탄 왕자' 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, 한국적인 '백마탄 왕자' 같다.

백 석 , 나 와 나 타 샤 와 흰 당 나 귀 ,

나타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.

20 21 04 21

(내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만 비해서)

오히려 현실에서는 나쁜 사람라는 나타샤라는 존재가 없고

망상하는 것 이었나?

작가 역시이끼 이 시를 구상하는 애기도 없었나

평범한 사랑시라기에는 백작의 쓸쓸함이 더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.

+ '나' 나타샤, '나', 방'나'귀 메 모두 '나'가 들어간다.

나타샤나 당나귀의 이미지가 비현실적이어서 그런 걸까?

다 '나'로 변죽을 친 것 같은 대성이라는 생각이 든다.

이성 밖의 나인 나타샤, 유년기, 혹은 순수함의 나인 당나귀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.